

## 1. 현재 - 직원 밥을 거칠게 불러 제끼는 스크루지

스크루지      이봐, 밥. 난로~!! 나 오는 거 보고 쪼지?  
(밥에게 입김 분다) 하~ 이것 봐, 밥. 입김 안 나오잖아!  
내가 늘 말했지, 따뜻하면 집중이 안된다고!

밥              네 그렇긴 하지만, 손이 얼어서 주판을 자꾸 잘못 건드리는 걸요.

스크루지      그건 그냥 네 손이 뚱뚱한 거야! 아님 네 손이 멍청하거나.

밥              아 네....

스크루지      내가 늘 말하잖아. 시간이란 두 종류 뿐이야,  
돈을 버는 시간 아니면 돈을 쓰는 시간!  
이렇게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술보다 더 비싼 기름을 마구 써 제끼다니.  
어쭙! 벽난로에 멀쩡한 종이도 넣었어?

## 2. 미래 - 비석에서 자기의 이름을 발견한 스크루지

스크루지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죽음이라니.  
비석에 그저 초라한 이름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라니.  
그래, 이게 내가 맞이할 죽음이고 내가 자초한 결말이지.  
내가 놓아버린 과거엔 후회만 가득하고  
무심했던 현재엔 고독만 쌓이고  
망쳐버린 미래엔 절망만 남은 거야.  
이제 되돌이가기엔 너무 늦어 버렸어.